Strategy

바빠지는 바이든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국내 수급 충격(개인 반대매매, 디레버리징)도 정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KOSPI는 2,300선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소비 불안, 기대인플레이션 급증으로 인한 빅스텝 금리인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2차 전지, 중국 관련주, 반도체 등 개별 기업/산업에 대한 악재가 KOSPI 발목을 잡고 있다. 대내외 변수들 속에 악재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2주 연속 KOSPI 하방압력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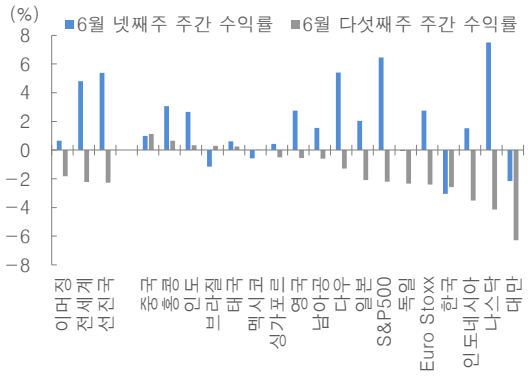
- 반면, 중국 경기반등은 지속되고 있다. 6월 중국 제조업 PMI(50.2)가 다시 확장국면에 진입했고, 비제조업 PMI(54.7)도 예상치(52.5)를 상회했다. 중국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 증시 강세가 글로벌 금융시장 하단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 중 투자심리를 자극했던 5월 미국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4월과 동일)에 그치며 물가 상승압력에 대한 부담도 진정되는 양상이다. 미국 6월 ISM 제조업 지수(53p)가 예상치(54.9)를 하회했고, 신규수주지수가 49.2를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는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을 유지하며 경기침체는 아직 아니라는 시그널과 물가 부담과 통화정책 우려 완화에 주목한다. 경기침체 우려까지 일부 선반영한 증시의 추가적인 레벨다운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여전히 반등 동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금융시장 분위기 반전의 키는 바이든이 쥐고 있다고 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은 최근 지지율 급락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 지지율은 38.4%까지 레벨다운되었고,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있어서도 바이든은 43.0%로 트럼프 43.8%에 역전당했다. 2024년 가상대결에서도 2개월 연속 트럼프에게 지는 상황이다.

- 바이든 지지율 급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있다. 미국인 93%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 중이다. 바이든이 OPEC회의를 앞두고 중동, 사우디를 방문하고, 대중국 관세 철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행보이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 물가지표 둔화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의 물가 잡기 행보가 멀지 않은 시점에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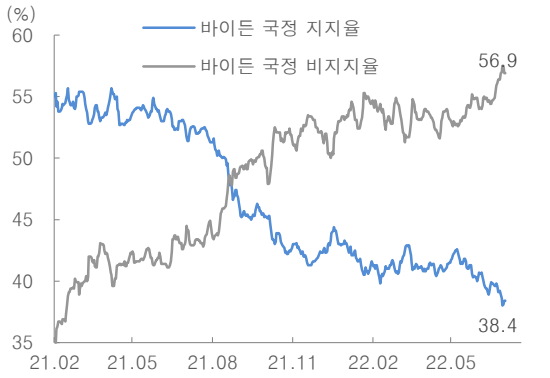
- 특히, 대중국 관세 철회에 주목한다. 중국 정부도 대중국 관세 철회에 있어서는 중국, 미국, 전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미중 간의 관세철회가 결정될 경우 미국 물가 안정, 외환시장 변동성 진정, 경기/교역 개선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완화 기대도 유입될 것이다. 최근 KOSPI, 중국 간 디커플링이 심해진 기저에는 미중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KOSPI 분위기 반전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극도의 공포심리, 불안정한 수급상황이 단기 변동성을 자극할수록 현재 KOSPI의 위치(펀더멘털대비 극도의 저평가 영역)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KOSPI 2,300선에서의 불안정한 흐름은 2차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단기 지지력/저점 테스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1. KOSPI 2 주 연속 주간 수익률 글로벌 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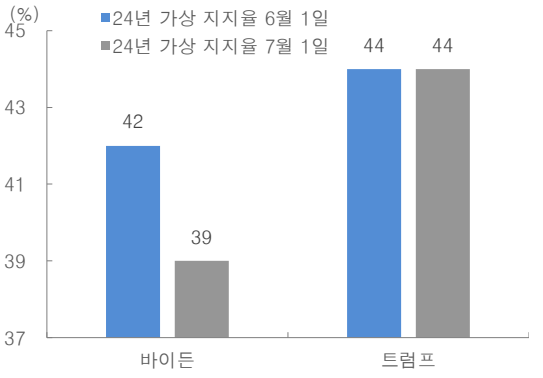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바이든 국정 지지율 최저치 경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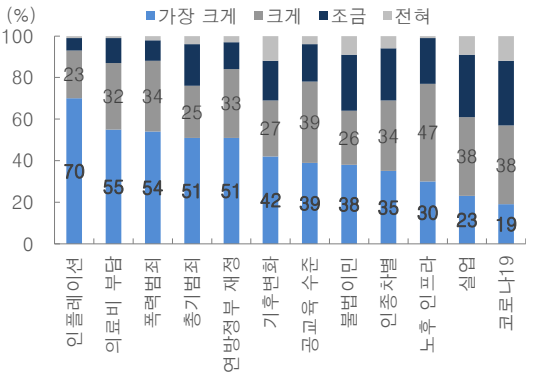
자료: RealClearPolitic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바이든 지지율 하락으로 24 년 가상대결에서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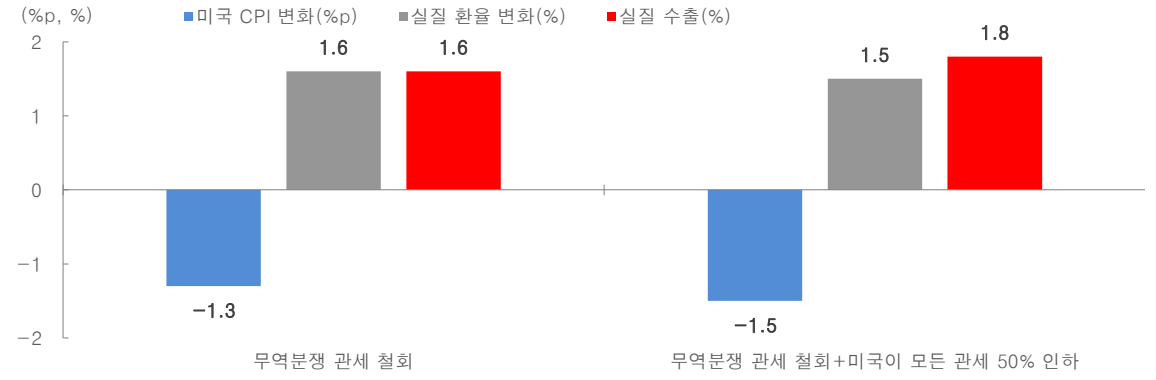
자료: 메이슨 대학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국인들의 주요 걱정거리. 인플레이션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아



자료: Pew Research,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무역분쟁 당시 부과된 대중국 관세 철회시 물가/환율 안정, 교역/경기회복 + 미중 갈등 완화 기대



자료: PII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